



보 도 자 료

책임자 김세중 실장(동향분석실, 3775-9059)
작성자 김세중 연구위원(3775-9059)
홍보담당 변철성 수석역(3775-9115)

보도 2021. 10. 8(금) 10:30부터
배포 2021. 10. 7(목)
매수 총 7매

보험연구원, 「2022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」 온라인 세미나 개최

2022년 보험산업, 경제 정상화에 따른 성장여건 개선 전망

- 보험연구원(원장: 안철경)은 10월 8일(금) 오전 10시 「2022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」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함
- 보험연구원 김세중 동향분석실 실장은 「2022년 보험산업 전망」을, 보험연구원 김해식 연구조정실 실장은 「2022년 보험산업 과제」를 발표함

2022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2021년 대비 3.2% 증가 전망 생명보험은 1.7%, 손해보험은 4.9% 증가 예상

- 2022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경제 정상화에 따른 성장여건 개선으로 전년 대비 3.2%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
-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21년 4.3%에서 2022년 1.7%로 증가세 둔화가 예상되나, 코로나19 반사효과 소멸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성장을 유지할 전망이다
-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2021년 5.5%, 2022년 4.9%로 명목경제성장률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이다

- 2022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질병·건강보험의 성장, 저축보험의 만기 보험금 재유입 등으로 전년 대비 1.7% 증가가 전망됨
 - 보장성보험은 신상품 개발 위축으로 인한 종신보험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, 질병·건강보험을 중심으로 2.7% 성장이 전망됨
 - 일반저축성보험은 시중금리 상승으로 금리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나, 2012년 급증 하였던 일시납 보험의 만기 후 재가입 효과 등으로 2.8% 성장이 전망됨
 - 변액저축성보험은 코로나19 이후 투자상품 선호 확대로 신규 판매는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이나, 기존 계약의 지속적인 유출로 4.7% 감소가 예상됨
 - 퇴직연금은 직전 년도 DB형 퇴직연금 사외적립비율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로 2.2%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
- 2022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성장세 지속으로 전년 대비 4.9% 증가가 전망됨
 - 장기손해보험은 질병, 상해, 운전자보험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5.2%의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임
 -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보험료 등록대수 증가 둔화, 보험료가 저렴한 온라인 채널 확대 등으로 2.1% 성장에 그칠 전망임
 - 일반손해보험은 배상책임보험 시장 확대와 신규 위험담보 확대 등으로 7.5%의 고성장이 예상됨
 - 퇴직연금은 계속보험료를 중심으로 8.0% 증가할 전망임
- 생명보험 중 일반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는 증가가 전망되나, 보장성보험과 변액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는 소폭 감소할 전망이며, 손해보험 중 장기 보장성보험 초회보험료는 소폭 증가가 예상됨
 - 일반저축성보험은 2012년 급증한 보험의 만기도래 후 재가입 수요로 16.4% 증가가 전망됨

- 생명보험 보장성 초회보험료는 종신보험 수요 약화로 2.8% 감소할 전망이며, 변액저축성보험의 경우 2021년 신규가입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8.7% 감소가 전망되나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의 신규판매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
- 손해보험의 장기 상해 및 질병보험은 건강보장 수요 확대로 소폭 증가가 예상됨

2022년, 경제 정상화에 따른 대면 영업환경 개선, 개인 및 기업보험 수요 확대 기대

- 코로나19로 확대되었던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은 점차 완화되고 있고,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음
- 코로나19 백신접종 가속화로 2021년 말 ‘위드 코로나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, 추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 대면채널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임
- 실물경제 회복세와 금리 상승은 개인보험과 기업성 보험 수요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
 - 민간소비 회복은 위축되었던 개인보험 수요 확대에 이어질 수 있음
 - 설비투자 및 수출입 증가는 기업성 보험에 긍정적이며, 건설경기 회복은 화재보험과 이행보증보험 수요를 확대할 수 있음
 - 금리의 점진적 상승은 장기보험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켜 보험 수요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됨
- 한편, 코로나19 반사효과가 소멸되면서, 예비적 저축 동기 약화, 유동성 증가세 둔화,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 둔화 등의 보험 수요 확대에 부정적 영향도 존재할 것임
- 또한 코로나19 종식 여부와 급증한 가계부채 문제 등 불확실성도 상존함

지속가능한 성장 기회 모색 시장혁신과 시장규율 정착에서부터

- 국내 보험산업은 구조화된 저수익성과 불안정한 소비자 관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 성장기회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, 이를 위하여 시장혁신과 신뢰에 기초한 시장규율 정착에 주력해야 함
 - (수익성, 소비자 관계) 2019년 기준 보험산업의 수익성(ROE)은 해외 대비 1/2 수준, 계약안정성(계약경과 2년 시점의 유지율)은 해외 대비 3/4 수준에 불과함
 - (지속가능 성장기회) 따라서 보험산업은 시장혁신을 통해 보험위험 인수와 자산운용의 본업 역량을 강화하고 신뢰에 기초한 시장규율 정착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임
- 이에 보험연구원은 시장혁신, 본업역량 강화, 소비자 신뢰, ESG 경영을 2022년 보험산업의 4대 과제로 제시함
 - 지속가능한 성장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4대 과제 도전 과정에서 보험산업은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경제적 역할은 물론 사회적 신뢰자본을 축적하는 사회적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
 - 또한, 2021년 과제로 제시된 사업재조정과 경쟁적 협력을 통한 디지털 전환은 2022년에도 여전히 보험산업 현안임을 강조함

기존 관행 탈피와 본업역량 강화

- 경제활동 과정에서 개인과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산업의 실물경제 지원 역할이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는 환경에서 소비자가 분화되는 가운데도 지속되려면 기존 관행에서 탈피하는 시장혁신이 필요함
- [시장혁신] 보험회사가 다양한 조직 형태로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, 플랫폼 중심 디지털 생태계의 공정경쟁 토대를 마련하여야 함
 - (다양한 조직 허용) 하나의 보험회사가 여러 생명보험 또는 여러 손해보험 자회사

를 가질 수 있게 하고, 보험업의 본질적인 업무 범위를 축소하여 다양한 분업과 사업재조정이 가능한 보험 생태계가 형성되어야 함

- **(디지털 생태계)** 공공데이터 및 플랫폼 데이터의 접근성 제고, 데이터 결합을 통한 고객맞춤형 서비스의 구현, 설명가능한 AI(XAI) 윤리기준 마련, 자연독점적 특성을 지닌 플랫폼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

○ **[본업역량]** 기후변화와 디지털 환경의 새로운 위험·서비스 수요에 대응해야 함

- **(위험인수역량 강화)** 재난위험 등 중소기업의 보험가용성 제고, 연금 등 장수위험 대비 체계 점검, 요양·간병서비스 투자 활성화, 건강관리·예방서비스 제공과 이를 위한 민관 파트너십 활성화가 필요함
- **(장기투자역량)** 투자인프라정책과 리스크평가 조정을 통해 장기투자 유인을 강화하는 한편, 그린/ESG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의 재조정도 병행해야 할 것임

시장규율 확립으로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시장 신뢰 회복

○ 그림자 상품규제는 영업행위 및 건전성 사후규제의 취약성과 비례하므로 K-ICS의 내실 있는 시행과 더불어 판매자의 책임을 무겁게 하는 방향으로 시장자율을 확립하여야 함

- **(감독혁신)** 보험회사와 상품의 좋고 나쁨을 시장이 판단하도록 하고, 그에 상응하여 충실한 정보공시와 판매책임을 강화해야 함
- **(판매책임)** 시장 판매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대형 GA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에 준하는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

○ 주목해야 할 환경 전개의 하나는 디지털에 능숙하고 사회적 의제에도 적극적인 새로운 소비자층의 등장과 베이비부머의 고령층 진입이므로 이들 세대에 대한 이해로부터 소비자 신뢰 제고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

- **(경험 분석)** 디지털 환경에서 상품 구매에서 보험금 청구에 이르는 소비자의 경험에 기초하여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갈등위험을 평가하는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

- (민원해결) 금융당국에 집중된 민원을 보험회사 내부 민원해결기구, ombudsman 등 제3자 기구 주관 민원해결 등으로 분산하여 시장자율을 강화하고 민원DB를 체계화하여 합리적인 약관 해석 관행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
- 마지막으로 보험회사는 국제규약으로 등장한 환경·사회·지배구조(ESG)와 상충된 위험을 인수하거나 자산에 대한 투자를 최소화하는 ESG경영을 통해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음
- (ESG 평가지표) ESG 범주, 해외 보험위킹그룹의 사례를 통한 ESG 평가지표와 공시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

※ 별 첨: 2022년 보험산업 종목별 전망 1부. 끝.

-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(<http://www.kiri.or.kr>)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<붙임>

2022년 생명보험산업 종목별 수입보험료 전망

(단위: 조 원, %)

종목	2019		2020		2021(E) ¹⁾		2022(F) ¹⁾	
	보험료	증가율	보험료	증가율	보험료	증가율	보험료	증가율
생명보험 전체 (퇴직연금 제외)	92.6	-1.4	97.0	4.8	98.8	1.8	100.4	1.5
보장성 ²⁾	44.4	3.9	46.1	3.8	47.4	2.8	48.7	2.7
저축성 ³⁾	47.4	-6.0	50.1	5.8	50.6	1.0	50.9	0.4
- 일반저축성	31.6	-5.7	34.7	9.8	34.8	0.1	35.7	2.8
- 변액저축성	15.8	-6.5	15.4	-2.3	15.9	3.1	15.1	-4.7
기타 ⁴⁾	0.8	0.6	0.7	-2.1	0.8	0.7	0.8	0.4
퇴직연금	24.6	46.0	22.6	-8.5	26.0	15.1	26.5	2.2
생명보험 전체 (퇴직연금 포함)	117.3	5.8	119.6	2.0	124.8	4.3	126.9	1.7

주: 1) 보험연구원 추정치(E) 및 전망치(F)임

2) 생명보험 보장성에는 종신보험, 질병보험, 변액종신 등이 포함됨

3) 생명보험 저축성에는 생존보험, 생사혼합보험, 변액연금, 변액유니버설 등이 포함됨

4) 생명보험 기타에는 일반단체보험이 포함됨

자료: 생명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2022년 손해보험산업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

(단위: 조 원, %)

종목	2019		2020		2021(E) ¹⁾		2022(F) ¹⁾	
	보험료	증가율	보험료	증가율	보험료	증가율	보험료	증가율
손해보험 전체 (퇴직연금 제외)	83.8	4.4	89.2	6.4	93.4	4.7	97.5	4.4
장기손해	53.1	5.0	55.9	5.3	58.9	5.3	61.9	5.2
- 상해·질병	36.2	10.9	39.8	10.1	43.4	9.0	47.0	8.3
- 저축	3.4	-23.7	2.8	-20.0	2.2	-20.5	1.7	-21.4
- 기타 ²⁾	13.5	0.3	13.3	-1.0	13.2	-0.7	13.2	-0.5
개인연금	3.3	-6.4	3.0	-9.1	2.6	-11.6	2.4	-9.5
자동차	17.6	5.1	19.6	11.6	20.4	4.0	20.8	2.1
일반손해 ³⁾	9.9	3.9	10.7	8.3	11.5	7.9	12.4	7.5
퇴직연금	11.8	9.3	13.1	11.4	14.5	10.4	15.6	8.0
손해보험 전체 (퇴직연금 포함)	95.6	5.0	102.3	7.0	107.9	5.5	113.2	4.9

주: 1) 보험연구원 추정치(E) 및 전망치(F)임

2) 장기손해보험 기타에는 재물, 운전자, 통합형, 자산연계형이 포함됨

3) 일반손해보험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과 권원보험이 포함됨

자료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